

북한의 구전설화에 대한 인식 고찰

김종균*

1. 머리말
2. 북한의 구전문학연구 및 설화자료 현황
3. 북한의 설화양식에 대한 인식
4. 맺음말

1. 머리말

북한의 구비문학과 고전문학에 대한 연구 성과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일은 현재 상황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연구 자료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 텍스트의 실체에 대한 접근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다. 1988년 해금조치 이후 북한에서 출판된 자료를 비로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조선고전문학선집』 등의 고전문학 출판 자료와 『조선문학사』 등의 연구서들이 국내의 출판사들에 의해 영인 보급되었다. 그러나 그 유통 과정이 음성적이었고, 지금에 와서는 검열·보안 및 저작권 등의 문제에 의해 북한 자료를 원활하게 유입할 수 없는 처지이다.

해금 이후 간헐적으로 북한의 고전문학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책자가 발간되기도 하였고, 연구자가 중국이나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 구한 자료나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의 국가 기관에서 구할 수 있는 제한된 자료를 분석하여 북한의 고전문학이나 구비문학에 관련된 논문을 학계에 발표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대체로 북한의 고전문학사를 대상으로 남한의 고전문

* 건국대학교 HK교수

1) 설성경·유영대, 『북한의 고전문학』, 고려원, 1990; 민족문학사연구소,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 창작과 비평사, 1991.

학사를 비교하고 통일문학사로서의 향방을 찾는 연구²⁾가 주를 이루었다. 이런 정황에서 북한의 구비문학에 대한 논의³⁾는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물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로 북한의 구비문학 관련 자료나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 역시 북한의 연구물을 자유롭게 온전히 접할 수 없는 한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 역시 이러한 제약을 벗어나지 못한 실정에서 작성되었으므로 애초에 한계를 인정하고 시작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 성과들 가운데 김영희·김문태·한정미 등의 논의는 이 글에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이 글의 전개에 충분히 수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글이 북에서 유입된 최근 자료까지를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들의 논의에서 좀 더 진전되었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그렇다면 온전한 자료 실체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굳이 북한의 문학 연구에 바장거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야기한다면 분단된 현실에서 통일은 우리의 지상의 과제로 설정되어 있고, 분단 이후 지속적·습관적으로 이야기해 온 통일이 다소 요원한 일인 것도 대체로 공감하고

- 2) 이복규, 「북한의 문학사 서술양식」, 『국제어문』 9·10합집, 국제어문학연구회, 1989; 설성경, 「남북한 문학사의 비교」, 김열규 외, 『한국문학사의 현실과 이상』, 새문사, 1996; 황폐강, 「남북문학사의 과제」, 『한국 고전문학의 이론과 실제』, 단국대 출판부, 1997; 설성경·김영민, 「통일문학사 서술을 위한 단계적인 방안 연구」, 『통일연구』 제2권 제1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8; 김대행, 「북한의 문학사 연구-문학의 역사를 보는 시각」, 『시와 문학의 탐구』, 역락, 1999; 조규익, 「통일시대 한국고전문학사 서술의 전망」, 『온지논총』 11, 온지학회, 2004; 신동훈, 「남북 고전문학사의 만남을 위하여」,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편, 『분단극복을 위한 인문학적 성찰』, 선인, 2009; 김종군, 「남북문학사의 고소설 형성론에 대한 비교」,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편, 『분단극복을 위한 인문학적 성찰』, 선인, 2009 등이 있다.
- 3) 김화경, 「북한 설화의 변개 실태에 관한 연구」, 『인문연구』 17권 2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6; 김화경, 「북한의 설화 연구 실태에 관한 고찰」, 『민족문화논총』 16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김문태, 「북한의 설화 연구-북한설화집을 중심으로」, 『누리와 말씀』 6호, 인천가톨릭대학교, 1999; 이복규, 「북한 설화에 대하여-관련자료집의 현황과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4집,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1; 김의석, 「북한 설화에 나타난 주제론 연구-조총련계 학생용 교재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3권,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2001; 김준기, 「북한의 신화 연구에 관한 고찰」, 『한국문화연구』 5집,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2; 김영희, 「북한에서의 구전설화 전승과 연구」, 『한국문화연구』 5집,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2; 한정미, 「북한의 설화인식과 전설의 도구화」, 『민속학연구』 15호, 국립민속박물관, 2004; 한정미, 「북한의 문예정책과 구비문학의 활용 양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04; 김문태, 「북한의 구비문학 장르 인식과 관점 연구」, 『어문연구』 33권 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등이 있다.

있다. 이는 기존의 통일 논의가 정치·경제적인 체제통합을 전제로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의 특수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체제통합을 통일의 방안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 순간의 통일이 한반도의 혼란을 지금보다 더욱 가중할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

이에 정치·경제학 분야의 애매한 통일 논의의 대안으로 인문학이 등장하게 되었다. ‘통일인문학’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같은 민족으로서 공유한 동질의 문화를 토대로 통일에 접근하자는 시각이다. 정서와 생활문화의 공통성을 찾아서 이를 상호 소통하는 가운데 정서문화적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시작한 일이다. 이러한 통일인문학에서 북측과 비교적 공유하기 쉬운 학문 분야가 문학과 역사, 민속학을 포함한 생활문화 영역으로 보인다.

문학에 한정한다면 분단 이후 창작된 현대문학 영역의 소통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분단 이전 함께 향유한 고전문학과 구비문학의 영역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국문학분야에서는 여태 북한과 공동학술대회를 기획하지 못한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이는 역사학 분야에서 남북역사학 대회나, 남북공동 고구려학술대회 등을 개최한 것과 비교했을 때 지극히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의 고전문학 분야 연구 성과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북한의 고전문학사나 북한의 고전 관련 논문들의 질적 수준이 근래에 들어 인민대중 교양서로서 기능하도록 집필되어 남측의 연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체로 문학 장르에 대한 개관 수준이거나 작품 해설이나 소개 수준에 머무는 추세⁴⁾이다. 아울러 연구 인력도 남한에 비하면 제한적이므로 교류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할 수만은 없을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구전문학에 대한 논의는 남한의 상황과 비교하였을 때 결코 뒤처지지 않아 보인다. 연구서나 개론서도 여타 연구실적물에 비해 빠지지 않으며, 구전설화 자료집 출판은 고전문학 작품집에

4) 현재 남한에서 접할 수 있는 북한의 고전문학 연구물은 『조선문학사』류와 『조선고전문학연구』, 『조선조선문학연구』류, CD자료로 「조선어문」,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민족문화유산」 등의 잡지들이다.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특히 구전설화 양식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연구서나 논문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구전문학연구서를 고대중세편과 항일혁명편(근대현대편)으로 나누어 발간하여 구전문학사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남한의 연구 성과물과는 대조적이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구전문학 연구에서 설화에 대한 논의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남한의 설화 분류체계와 대비되는 설화양식에 대한 논의들에 대해 소개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아울러 남한과 달리 구전문학사를 서술하는 이론적 근거를 찾아보고 현대의 구전설화 창작에 대한 관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한의 현대 구비문학 자료 구축의 시각과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서 활발하게 출판되는 설화자료집의 유통 양상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2. 북한의 구전문학연구 및 설화자료 현황

2. 1. 북한의 구전문학연구 성과

북한의 구전문학에 대한 연구 성과는 남한에 비해 그 시작이 앞선다고 할 수 있다. 구전문학 전반에 대한 개론서 형식의 연구서로 북에서는 1962년 고정옥의 『조선구전문학연구』(과학원출판사)가 출판되었다. 남한에서는 1971년 장덕순 외 3인의 공저로 『구비문학개설』(일조각)이 발간된 사실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남북 공히 문학사 등에서 부수적으로 다룬 성과는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독자적인 개론서로서 출판을 놓고 보면 북한에서의 구전문학에 대한 관심이 남한을 앞선 것은 부인할 수 없을 듯하다. 남한에서는 위의 개론서가 학계에서 굳건한 입지를 마련하여 현재까지 여러 대학에서 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이후 김태곤 외 6인 공저로 『한국구비문학개론』(민속원, 1995), 강등학 외 공저로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월인, 2003)가 출판되어 개론서 출판에 대체로 집중되어 있다. 물론 연구자별로 구비문학에 대한 이론 및 작품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였고, 『구비문학연구』와

민속학 관련 학술지를 통해 북한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연구 성과를 산출하였다. 아마도 북한의 제한된 출판 여건에 비해 남한의 출판시장이나 연구 인력이 활성화되어 오히려 연구 성과가 집중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북한의 경우는 제한된 연구 인력과 출판사, 당 주도의 출판 등의 여건으로 그 수량에서는 남한에 미치지 못하지만 구전문학연구 성과를 선언적으로 공표하고 있어 결과를 파악하기에는 용이하다. 북한에서 그동안 출판된 구전문학 관련 연구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고정옥, 『조선구전문학연구』, 과학원출판사, 1962.
- ② 장권표, 『조선구전문학개요(고대중세편)』, 사회과학출판사, 1990.
- ③ 리동원, 『조선구전문학개요(항일혁명편)』, 사회과학출판사, 1994.
- ④ 리동원, 『조선구전문학연구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 ⑤ 리동원, 『조선구전문학연구2』, 문학예술출판사, 2005.

①에서 고정옥은 구비문학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실제 자료의 해석을 연계⁵⁾하여 집필하고 있다. 여기서는 19세기 이전의 구비문학을 설화·민요·민간극·판소리·속담·수수께끼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고정옥은 설화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면서 바리데기나 성주풀이 같은 서사무가를 언급하고 있지만 구비문학의 장르로 무가를 따로 설정하지는 않았다.

고정옥 이후 구전문학이론에 대한 집체적인 논의를 한동안 찾을 수 없다가 1990년 이후 인민교양서로서의 구전문학 개론서가 발간되었다. ②의 경우 학문적 연구서라기보다는 대중서로서 구전문학의 전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③과 같은 항일혁명 관련 구전문학 자료를 따로 마련하여 출간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④와 ⑤에서도 나타나는데, 앞의 두 권이 개요서로서 인민대중을 독자층으로 염두에 두었다면 뒤의 두 권은 연구서로서 다소 깊이를 갖춘 집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구전문학을 고대중세편과 항일혁명편으로 이분하여 편제하고 있는데, 항일

5) 이에 대한 해설은 고정옥 저, 신동훈 해제, 『조선구전문학연구』, 민속원, 2009에 상세하다.

혁명편에 대한 부분은 흔히 김일성 가계의 우상화 산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 부분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구한말의 구비문학과 독립군들의 군가, 항일투쟁담을 민요와 전설로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점이 남한의 구비문학계가 자료를 바라보는 시각과는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라 하겠다.

북한에서 구전문학 전문 학술지는 찾을 수 없다. 1961년부터 고정옥을 중심으로 현지 조사 자료를 연도별로 묶어서 『인민창작1-3』(과학원출판사, 1961-1963)⁶⁾이라는 자료집을 출간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연구서 성격은 아니다. 북한에서 발간되는 어문학 관련 잡지는 『조선어문』과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민족문화유산』 정도로 파악된다. 여기에는 어문학 및 민속학 관련 논문과 상식, 작품들이 소개되고 있다. 여기에 구비문학에 관련된 논문들이 수록되는 경우가 있다. 이 글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은 구전설화의 양식에 관련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⑥ 오희복, 「구전설화 작품들의 형태적 특성에 대한 간단한 고찰」, 『조선고전문학연구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⑦ 리동원, 「설화양식의 문화발전에 대한 고찰」,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2008년 1호.

두 필자는 모두 박사이면서 교수급 연구자로서 설화 장르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들어 분류하고 있다. 특히 그 발생을 역사 시기별로 명확하게 밝히고자 노력한 흔적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남한 구비문학계의 연구 경향과는 차별되는 지점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문학연구가 사회과학원 산하의 언어문학연구실 위주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두고 볼 때 설화 양식의 발생과 분화를 과학적으로 논리정연하게 해명해야 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특히 ⑦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구전문학 관련 논문으로서,

6)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구비문학 자료들을 해방 후 군중가요, 해방 전 인민가요, 해방 전 이야기들, 전설, 야담, 민담, 동화, 속담, 수수께끼, 수수께끼 동요로 목차를 구성하여 출판하였다. 자료의 제목 아래에 제보자의 거주지와 성명, 수집가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다.

필자 리동원은 북한의 구전문학 분야에서 고정옥을 잇는 대가로 평가되는 바, 이 논문은 북한 학계의 구전설화 양식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2.2. 북한의 설화자료 현황

북한은 정권 초창기부터 인민에 의해 창작된 구비문학에 큰 의미를 두었고 이를 체제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모든 학문 연구 및 출판이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지시, 주체문예이론에 따르고 있는데, 김일성은 일찍이 “위대한 예술의 창조자는 인민⁷⁾”이라고 교시하여 민간에서 구전 창작된 이야기나 민요를 개인이 창작한 문학 작품보다 우위에 두고 평하였다. 구전문학의 용어로 ‘구전문학 외에 구비문학·인민창작·인민구두창작·구전인민창작 등과 국제적 통용어로서 폴클로르가 쓰인다⁸⁾’고 언급한 내용으로 볼 때 인민성을 구비문학의 본령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풍토에서 구비문학 특히 구비설화를 통한 인민교화에 주력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김정일의 지시에 근거하고 있다.

청년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지식을 주기 위하여 야담사화집, 전설집같은 것을 많이 출판하여야 한다.(김정일 지시, 1980년 3월 6일)⁹⁾

우리는 과거의 문학예술 작품들 가운데서 저속하고 비과학적인 것은 버리고 진정으로 인민적인 것은 계승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자면 인민들 속에 파묻혀 있는 이야기와 전설, 고전문학 작품을 더 많이 발굴하여 번역하거나 윤색하여 출판하여야 합니다.¹⁰⁾

7) 고정옥, 「수상 동지의 11월 27일 교시를 받들고」, 『인민창작 1』, 과학원출판사, 1961.

8) 지덕봉, 「현 시기 구전 문학에 대한 연구와 대중화 사업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 가지 문제」, 『문학연구』, 1962년 4호.

9) 오희복, 「구전설화 작품들의 형태적 특성에 대한 간단한 고찰」, 『조선고전문학연구 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10) 최옥희, 「머리말」, 『고전문예작품사화집』, 예술교육출판사, 1991.

이러한 지시에 따라 구전문학, 특히 설화에 대한 출판은 활발하였다. 여타 고전문학 작품의 출판은 『조선고전문학선집』으로 묶어서 진행한데 반하여 설화자료들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독자적인 시리즈물로 출간되고 있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 북한 설화 목록>

연번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전체면수
1	전기설화집	문예출판사	문예출판사	1990	289
2	단군설화집	김정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8	288
3	단군전설 1: 우리나라 건국시조	김정실	금성청년출판사	1995	104
4	조선설화집: 정강어	김동수	과학기술출판사	1991	135
5	설화삼국사	조희승	사회과학출판사	2005	399
6	(설화집) 저절로 끓는 밥가마	오희복	문예출판사	1991	246
7	구전문학 자료집: 설화편	최중배, 현두천	사회과학원출판사	1964	265
8	조선구전설화집	김경식	사회과학출판사	2009	243
9	조선사화전설집 2	리원희	문학예술출판사	2009	257
10	조선사화전설집 10	김세민	문예출판사	1991	235
11	조선사화전설집 1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편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2	319
12	조선사화전설집 12	박현균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202
13	조선사화전설집 13	박현균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5	239
14	조선사화전설집 14	박현균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8	200
15	조선사화전설집 15	박현균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231
16	조선사화전설집 16	박현균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1	223
17	조선사화전설집 17	리원희	문학예술출판사	2003	284
18	조선사화전설집 18	리빈	문학예술출판사	2004	177
19	조선사화전설집 19	리현환	문학예술출판사	2006	223
20	조선사화전설집 20	리현환	문학예술출판사	2006	251
21	백두산3대장군 설화집 1	김윤성	사회과학출판사	2001	249
22	백두산3대장군 설화집 2	김윤성	사회과학출판사	2002	200
23	백두산전설	근로단체출판사 편	근로단체출판사	1981	200
24	백두산전설	금성청년출판사 편	금성청년출판사	1995	156
25	백두산 전설집 1	김우경	문예출판사	1987	259
26	백두산 전설집 2: 날개돋친 흰말	김우경	문예출판사	1992	266
27	백두산 전설집 4: 신기한 발자국	지홍길	문학예술출판사	2004	191
28	백두산 전설집 5: 백두산의 쌀나무	김종석	문학예술출판사	2005	207
29	백두광명성전설	김우경	평양출판사	2003	175
30	백두광명성전설 2	평양출판사 편	평양출판사	1994	105
31	백두광명성전설집 1	김우경	금성청년출판사	1994	176
32	백두광명성전설집 2: 아흔아홉가지 축시법	김우경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240
33	백두광명성전설집 3: 하늘이 낸 장군	김우경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8	247
34	백두광명성전설집 4: 무지개 대문	김우경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270
35	백두광명성전설집 5: 하늘만이 안다	최성진	문학예술출판사	2006	251
36	백두광명성전설그림책 2:	김우경	조선미술출판사	1993	56

	룡마바위, 장검바위				
37	백두광명성전설그림책 3: 새 장수의 예언	김우경	조선미술출판사	1994	88
38	백두광명성전설그림책 5: 백두밀영의 마가목	김우경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7	120
39	백두광명성전설그림책 7: 3대위인이 내린성산	김우경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128
40	백두광명성전설그림책 8: 하늘나라 꽃	김우경	문학예술출판사	2002	116
41	금수산기념궁전 전설집 (3)	김우경	문학예술출판사	2004	197
42	금수산기념궁전 전설집 (4)	김우경	문학예술출판사	2007	213
43	(전설그림책) 떡돌에 깃든 전설	마선영	금성청년출판사	1986	64
44	비사성의 전설	송광명	금성청년출판사	2008	134
45	백두산의 옛 전설 (1)	권택무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267
46	백두산의 옛 전설 (2)	리원희	문학예술출판사	2002	267
47	금강산 전설집	평양출판사 편	평양출판사	1999	287
48	금강산전설	리용준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0	267
49	금강산전설	리용준	사회과학출판사	1991	275
50	금강산전설	리용준	사회과학출판사	2004	464
51	구월산전설 (1)	리학남 외 수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271
52	구월산전설 (2)	박현균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8	223
53	칠보산 전설 (1)	장동일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231
54	칠보산 전설 (2)	박현균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0	263
55	명소에 깃든 전설: 칠보산	문성렬, 김경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8	206
56	명소에 깃든 전설: 모향산	민형, 김경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	306
57	명소에 깃든 전설: 금강산	리용준, 김향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263
58	백마산: 전설집 (2)	리동윤, 리성근, 김창길	문예출판사	2010	174
59	평양전설: 조선구전문학자료집	김정설	사회과학출판사	1990	395
60	을밀대의 소나무: 전설집	김정설	문예출판사	1990	174
61	봉이 김선달 전설	김정설	사회과학출판사	1992	304
62	재미나는 옛이야기 1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문학사실	근로단체출판사	1986	152
63	재미나는 옛이야기 2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문학사실	근로단체출판사	1986	144
64	재미나는 옛이야기 3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문학사실	근로단체출판사	1986	144
65	조선민화집: 대성산의 장수못	박남길	평양출판사	2003	296
66	(조선민화집) 보통이 아닌 보통문	평양출판사 편	평양출판사	2002	357
67	조선민화집(1): 고주몽	김원필	금성청년출판사	2008	199
68	조선민화집(2): 콩쥐팥쥐	김형운	금성청년출판사	2009	199
69	조선민화집(3): 토끼와 자라	진중섭	금성청년출판사	2010	211
70	조선민화집(4): 의좋은 형제	김정일	금성청년출판사	1987	240
71	조선민화집(5): 해와 달	김박문	금성청년출판사	1988	223
72	조선민화집(9): 대동강총각과 선녀	김신복	금성청년출판사	1994	208
73	조선민화집(10): 금강선녀	한기인, 전승화, 림성찬	금성청년출판사	1987	207
74	조선민화집(12): 달미바람	최낙서, 리도현	금성청년출판사	1987	215
75	조선민화집(15): 금산포의 도라지	로효식	금성청년출판사	1991	240

76	조선민화집(16): 을지문덕의 장검	림왕성	금성청년출판사	1987	239
77	조선민화집(17): 도미와 그의 안해	리송필	금성청년출판사	1991	231
78	조선민화집(20): 개사니가 먹은 구슬알	리송필	금성청년출판사	1993	200
79	조선민화집(22): 토끼바위와 화살바위	전종섭	금성청년출판사	1998	191
80	조선민화집(23): 풍문대굴의 거부기	전종섭	금성청년출판사	2009	223
81	조선민화그림책(5): 보약먹은 그림자	손형호	금성청년출판사	2004	127
82	조선민화그림책(6): 보검과 세 장수	박성명	금성청년출판사	2004	64
83	조선민화그림책(7): 말 안들던 청개구리	박성명	금성청년출판사	2005	64
84	조선민화그림책(8): 도적을 잡은 소년	박성명	금성청년출판사	2004	56
85	조선민화그림책(9): 골방재님	박성명	금성청년출판사	2004	56
86	조선민화그림책(10): 해와 달	김박문	금성청년출판사	2005	63
87	조선민화그림책(11): 해녀와 왕자	채정원	금성청년출판사	2006	207
88	조선민화그림책(12): 전우치전	박성명	금성청년출판사	2007	150
89	조선민화그림책(13): 장화홍련전	박정수	금성청년출판사	2008	118
90	조선민화그림책(14): 토끼전	김련화	금성청년출판사	2009	100
91	(그림책) 온달전	양철용	평양출판사	1989	104
92	(민화집) 강물에 던진 금덩이	류도희, 윤석범	문예출판사	1990	134
93	(사화집) 향산골의 메아리	리성덕	금성청년출판사	1991	171
94	조선력사일화집	김정설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374
95	조선력사일화집(2)	김정설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435
96	조선력사일화집 1: 고조선~삼국편	박현균 편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236
97	조선력사일화집 2: 고조선~삼국편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0	244
98	고전문예작품사화집	최윤희	예술교육출판사	1991	255
99	그림으로 본 조선력사 10: 고구려를 세운 고주몽전설 (고구려편 1)	최홍식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01	152
100	그림으로 본 조선력사 36 (신라편 2): 일본왕이 된 연오랑전설	최홍식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06	208
101	그림으로 본 조선력사 48 (고려편 1): 고려를 세운 왕건의 전설	최홍식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06	208
102	조선의 이름난 작가와 일화(1)	리기원 외 편	백과사전출판사	2006	495
103	조선의 이름난 작가와 일화(2)	리기원 외 편	백과사전출판사	2009	480
104	증녀성일화집	길영수, 변규순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6	188
105	야담집	료은옥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439
106	조선야담집 1	주병도, 강명도, 등순호	사회과학출판사	1995	503
107	웃음이 비긴 기저: 야담집	성문호	평양출판사	2007	293
108	조선야담집1: 왜놈에게는 말보다 주먹이 제일	최홍식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07	179
109	조선야담집2: 거짓말쟁이 나라 일본	최홍식	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08	259

110	(야담집) 돈과 량반	조선출판물교류협회 편	조선출판물교류협회	1998	256
111	금강산일화집	평양출판사 편	평양출판사	1998	211
112	조선중세풍자해학집	주병도 외 번역	사회과학출판사	2000	195

위의 목록 가운데 『조선사화전설집』은 현재 20권까지 출판되어 북에서 사회와 전설에 대한 관심을 읽을 수 있다. 아울러 금강산이나 구월산, 칠보산 등에 대한 지명 전설의 출간에도 비중을 두어 인민들의 교양 함양을 의도하고 있다.

백두산은 민족의 영산으로서 그에 얽힌 전설은 옛 전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김일성과 김정숙, 김정일의 우상화 장치로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3인을 백두산 3대장군으로 칭하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 『백두산전설』은 김일성에 대한 전설이며, 『백두의 녀장군전설』은 김정숙, 『백두광명성전설』은 김정일에 관련된 전설로 명칭을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백두산전설>이 순연히 한 개인의 창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항일혁명기에 인민들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어 ‘구전설화가 실재한 사실에서 기인하다’는 북한의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1.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던 첫 시기 농촌 마을에 젊은 과부가 살았는데, 태기가 있었다.
2. 과부가 우물을 푸는데 어린 아이 얼굴이 비쳤고, 그 옆을 보니 늙은한 사내 아이가 ‘어머니’하고 품에 안겼다.
3. ‘네가 누구냐?’고 물으니 아버지의 뜻을 이으려고 온 아들이라고 하여, 뱃속의 아들로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을지 묻자, 왜놈과 싸워 나라를 찾겠다고 한다.
4. 나라를 찾을 재주를 부려 보라고 하자 무지개를 타고 저륜대(겨륜대)로 수만 명의 군사를 만들었고, 백마를 타고 지휘하였다. 어머니는 남편이 쓰던 장검을 내 주었다.
5. 어린 장수는 북동산에서 마술을 하며 왜놈을 섬멸하자, 조선 팔도의 애국 청년들이 모여들었다.

6. 어린 장수는 인민이 사는 마을로 내려와 하룻밤 자기도 하고, 일도 거들고, 살아가는 일을 걱정하기도 하였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고, 어린 장수가 머문 마을의 왜놈들은 몰살을 당했다.
7. 왜놈들이 어린 장수를 잡으려고 몰래 추적하자 어린 장수는 뒤따르는 것을 알면서 북동산 깊숙한 골짜기로 유인하고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
8. 놀라서 하늘만 쳐다보는 왜놈들에게 북동산 제일봉에서 탕탕소리가 울리더니 하늘에서 푸른 번개가 일고, 비가 강물처럼 쏟아져 왜놈들이 몰살당했다.
9. 기뻐하는 인민들이 춤을 추고, 이 소문이 팔도에 퍼졌는데, 북동산 제일봉에 깊은 물이 고여 있는데, 어린 장수가 새끼손가락으로 물을 튕긴 것이 강물처럼 비가 내린 것이고, 번개가 번뜩인 것은 어린 장수가 풀어 놓은 병사들이 칼을 휘둘러서 그랬다는 것이다.
10. 그때부터 인민들은 북동산 어린 장수가 축지법을 쓴다느니, 왜놈이 망할 날이 멀지 않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침이 마르도록 하였다.¹¹⁾

항일혁명 시기에 유행한 장수설화의 하나인데, 본문에서 주석으로 북동산을 백두산으로, 북동산 제일봉의 물을 천지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놈과 대적한 어린 장수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만주 일대에서 항일무장 투쟁을 치열하게 벌인 김일성으로 연결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 이야기는 1961년 발간된 구전문학 조사 자료집인 『인민창작』 중 ‘해방 전 이야기들’ 부분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가랑잎을 타고 강물을 건너고, 축지법을 써서 산맥을 넘었다’는 김일성 우상화 전설로 정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이후 북에서 인민들 사이에 회자되는 이야기를 조사 수집하고 출간한 사례를 아직 찾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금수산기념궁전 전설집』 14권의 서지 사항에는 저자나 필자라는 용어 대신 ‘발굴정리’라는 항목으로 편찬자를 명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인민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를 발굴하고, 유사한

11) <북동산의 어린 장수 이야기>(함북 청진시 김명호 구술, 리학섭 수집), 『인민창작 1』, 과학원출판사, 1961.

이야기나 동일 소재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정리하고 재가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이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수록된 내용은 이름에 얽힌 여러 사례들을 엮어서 김일성의 신이함을 드러내고 있다.

광복전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비슷한 《김일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매일신문》 혜산지국의 한 기자가 장백현의 경찰서장에게 자기의 명함장을 내보이자 그것을 받아든 서장이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졸도하여 쓰러졌다는 이야기는 당시에 널리 알려진 전설이다. (...)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이름이 같은 후창사람은 자기 집대문에 문패를 자랑스럽게 빼젓이 붙이였다. 왜놈들은 이 문패를 보고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며 감히 대문 안에 들어설 념도 못했다.¹²⁾

위 이야기는 김일성(金日成)과 이름이 비슷하거나 같은 사람들이 겪은 신이한 이야기라고 여러 지방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를 엮어서 한편의 이야기를 만든 사례이다. 발굴정리자로 명시된 김우경이란 사람이 직접 허구로 창작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것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표시된 서지 내용과 작품 문면의 내용을 봐서는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수집 정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금수산기념궁전 전설집』에는 이렇게 민간에서 소재를 취해 온 경우도 있지만 개인의 창작으로 볼 이야기도 섞여 있는 것을 볼 때, 구전적인 인민창작의 결과물을 계기로 본격적인 개인 창작의 전설들이 대거 출현하게 되었다고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한편 『금수산기념궁전 전설집』은 김일성 일가 가계에 대한 전설집으로 이상화의 영역을 확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김일성의 고조 김계상·증조 김응우·조부 김보현·부 김형직에 대한 이상 전설이 기술되어 있는데, 여러 대 조상들의 신이한 행적과 인민을 위한 영웅적 면모를 시리즈로 엮어서 제시하는 구성이 고려 건국신화라고 이를 수 있는 <고려세계> 구조와 흡사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김일성 사망 당일의 기상 이변을 <금수산의 천둥>으로 그리고 있으며, 사후 나흘 째 밤하늘의 초승달과

12) <기이한 이야기>, 『금수산기념궁전전설집』 3, 문학예술출판사, 2004, 11~21면.

금성의 이동을 보고 <새별과 달이 합치다> 등의 이야기를 통해 신이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지속적으로 현대의 전설을 만들어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화에 대한 출판도 김정일의 지시¹³⁾에 따라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수록된 이야기들은 대체로 윤색을 거쳐 편집되었으나 전설에 비해 사실 입증이 불필요하므로 역사서나 야담집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끌어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에서 출판된 설화집들은 남측과 같은 오락물이 풍부하지 않은 실정에서 독서물로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1960-70년대의 남한의 출판 시장과 흡사한 양상으로 활기를 띠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북한의 설화양식에 대한 인식

북한의 구전문학연구에서 우리와 다른 점은 설화양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는 점과 현대의 구전문학 창작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남한의 경우 『구비문학개설』에서 설화 3분법을 언급한 이후 큰 이견 없이¹⁴⁾ 학계와 교육계에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5분법이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도 언급했듯이 구전문학의 특징을 구술성보다는 인민성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구비문학의 현대적 창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다.

13) 민화는 전설보다 인민성이 더 강하고 예술성이 풍부한 설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설의 주인공으로는 보통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세운 왕이나 이름있는 장수, 정승과 같은 인물이 많이 나오지만 민화의 주인공은 대체로 가난한 농민이나 머슴군과 같은 천대받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민화는 전설처럼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지명과 결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상을 보다 자유롭게 펼치고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갑니다.(김정일 지시, 리동원, 『조선 구전문학연구 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131면.)

14) 김화경 교수의 경우는 설화 3분법 체계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에스닉 장르 (ethnic genre)를 찾아야 한다고 논의한 경우도 있다.(『한국의 설화』, 지식산업사, 2002, 11~86면.)

3.1. 양식 분화에 대한 과학적 논증

구전설화에 대한 북한의 논의는 교과서적으로 명시되고 있다. 먼저 고정옥은 『조선구전문학연구』에서 19세기 이전의 구전문학에 대해 논의하면서 설화장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우리는 중세기 설화를 신화, 전설, 민담(民譚), 동화, 우화 및 재담으로 분류한다. 이 열거 순서는 민담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그 발생 순서를 의미한다.¹⁵⁾

이렇게 신화·전설·민담·동화·우화·재담으로 장르를 구분한 견해는 북한의 설화양식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까지의 논의에서 누락된 경우나 세분화를 시도한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 틀로서는 여기서 벗어난 경우를 찾기 어렵다. 1993년에 오희복의 논의¹⁶⁾에서는 재담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을 뿐 나머지 다섯 양식을 토대로 설화의 발생과 특징에 대해 서술하였고, 2008년의 리동원의 논의¹⁷⁾에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면서 다시 재담과 소화를 독자적인 양식으로 설정하자고 언급하고 있다.

고정옥은 이러한 양식체계를 대체로 이야기의 배경이나 등장인물 설정 등의 형태적인 특징과 작품의 문면에 투영된 환상성이나 인민들의 향유 의식 등의 내용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서구의 설화분류 이론을 전혀 언급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상으로 보면 고정옥의 행적이 해방 후 서울대 사범대학 국어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월북하였으므로 일제 강점기 경성제국대학에서 습득한 구전문학 이론이 토대가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듯하다. 이점에서 보면 북한의 구전문학 이론도 남한의 학문적 계통과 동일한 궤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민담의 하위양식으로 생각하는 동화와 우화, 재담에 대한 독립된 양식 설정은 주목을 요한다. 동화와 우화는 등장인물의 상징적

15) 고정옥, 『조선구전문학연구』, 과학원출판사, 1962, 98면.

16) 오희복, 「구전설화 작품들의 형태적 특성에 대한 간단한 고찰」, 『조선고전문학연구 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17) 리동원, 「설화양식의 분화발전에 대한 고찰」,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2008년 1호.

성격에서 공통된 특성을 보이고 우화가 아동들의 사고방식에 의거하여 창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그러나 동화는 특유의 ‘자유분방한 상상력의 날개’를 가졌다면 우화는 ‘풍자의 화살’을 가지고 있으며, 동화가 아름다운 정서로 어린 세대를 교양한다면 우화는 세태적 교훈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¹⁸⁾ 독자적인 양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화 장르는 구전 우화인 <화왕계>와 같이 그 연원이 깊지만 문학으로서 계통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고, 구전문학으로서도 독창적인 영역을 이루지 못하고 우화적 전설, 우화적 민담, 우화적 재담 등의 형태로 발전한 것을 애석해 하는 입장이다.

재담에 대한 견해는 ‘소화’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그 독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재담은 우화와 유사하게 특수한 예술적 기지를 필요로 하는 만큼 전문화될 가능성을 가졌으며 오늘날 군중 문화에서 재담 형식으로 발전하면서 가장 인기 있는 상연 종목의 하나로 되고 있다.

재담은 물론 그 필수적인 요소의 하나로서 해학을 동반하며 또 해학으로 시종하기도 한다. 그러나 적지 않은 중세기 재담들은 중세기 사회에서의 우세한 자들-관료, 부자, 유학자, 승려, 그리고 시어머니, 남편 등-에 대한 신랄한 풍자로 청중을 격동시키고 있으며 세태적인 짧은 이야기를 통하여 봉건 말기 및 ‘개화’ 당초의 사회상의 이 구석 저 구석을 남김없이 들추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의 재담에 충분히 계승되어 있다. 소화는 이러한 고도의 사상성과 인민 생활이 걸어온 구체적인 자취들을 도저히 원만하게 포괄할 수 없다. 우리는 재담의 일부분을 소화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나 단순한 해학적 재담을 재담 일반에서 떼어서 소화라고 부를 필요를 구태여 느끼지 않는다.¹⁹⁾

봉건적 권력과 권위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재담의 특성으로 삼아 독자적인

18) 고정옥, 『조선구전문학연구』, 과학원출판사, 1962, 102면.

19) 위의 책, 104면.

장르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구체적인 예시물로 『팔도재담집』을 들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재담 텍스트가 향유되는 방식에 대한 시각이다. 읽기 위한 독서물로서의 재담이 아니라 무대에서 상연되는 재담을 구전설화의 존재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야담에 대한 논의에서도 부각되고 있다. 식자들의 문헌 기록으로서의 야담이 아니라 판소리 가수와 유사한 야담가(전기수)들이 구송하는 야담을 진정한 구전설화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다. 곧, 인민창작의 설화와 문학으로서의 설화를 구분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진정한 구전설화는 인민창작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작품 속에 내재된 의미와 기법을 통해 설화 장르를 내세우는 논의는 상당한 깊이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정옥의 견해는 후진 학자들에 의해 간간히 요약 정리되어 논문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학문 풍토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궁금하다.

우리는 구전설화작품들을 당성, 노동계급성의 원칙과 역사주의적 원칙에 튼튼히 서서 올바르게 다룸으로써 민족유산으로서의 체모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 사람들을 교양하는데 적극 리용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비록 혼잡되어있고 미분화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방법론을 가지고 설화작품들을 과학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지난날 우리 선조들이 이루어놓은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유산에 대하여 우리 시대 사람들이 정확한 리해를 가질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²⁰⁾

북한에서 구전설화를 보는 시각은 기본적으로 당성과 노동계급성(인민성), 역사주의적 원칙을 따름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모호함을 해명하여 대중을 교양하고 이해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연유에서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설화 장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야기 문학의 명칭에 대한 논쟁이 소모적이라는

20) 오희복, 「구전설화 작품들의 형태적 특성에 대한 간단한 고찰」, 『조선고전문학연구 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99면.

입장에서 두루두루 범박하게 사용하거나 학자에 따라 독자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하는 우리 학계와는 비교되는 지점이다. 아울러 북한에서 인민 교양을 위해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되는 것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는 연구자들과 일반 대중들의 구전설화에 대한 소통지점²¹⁾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도 없는 상황이 안타깝게 여겨진다.

이러한 역사주의적 원칙과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구전설화를 바라보는 입장이므로 각 양식의 발생과정과 그 시기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진지하다. 특히 언제부터 그 양식이 출현하고 본격적인 자리를 확보하였는가 하는 논의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설화양식 발생에 대한 역사적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²⁾

설화양식	원시	고대	중세				근대 (봉건말기)	현대
			삼국	고려	조선전기	조선후기		
신화	발생	성행		문학신화				
전설		발생	성행	보편화	지속	지속	지속	지속
민화			발생	성행	보편화	지속		문학민화
동화			발생	성행	보편화	지속	문학동화	
우화			발생	성행	보편화			
개담					발생		보편화	
소화					발생			문학소화

신화의 발생을 원시사회로 보고 우주세계와 천지개벽, 창세기적 내용을 담은 신화가 가장 오래되고 신화성이 강하다고 보았고, 수렵과 채집, 농경을 반영한 후기 신화일수록 인간생활에 근접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작품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다. 북한에서는 무가를 구전문학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논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화를 <단군전설>에 포섭되어 있는 <환웅신화>이며 그 뒤를 <해모수신화>가 잇고 있다는 본다. 이 신화들이 원시시대에

21) 현지조사 중 일반대중들의 설화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노인들 대다수는 신화나 민담과 같은 용어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고담(옛날 이야기)과 전설에 대한 개념은 비교적 명확하게 잡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 리동원, 「설화양식의 분화발전에 대한 고찰」,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2008년 1호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창조되었지만 구전화되는 과정에서 가변되고 10여 세기를 지나 역사문헌에 수록되면서 시조왕전설과 결부하게 되었다는 논의도 역사주의적 원칙에서 근거한 과학적 해명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전설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며 긍정적²³⁾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시대에 건국설화 중 시조왕전설로 발생하여 현재에까지 인민들 사이에서 창작되는 양식으로 보는 입장이므로, 그 서술에 있어서도 가장 장황하며 구체적인 면모를 보인다.

그리고 각각의 양식들이 앞선 양식을 계승하는 가운데 발생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재담영역에서 <팔도재담집>이나 동화에서 <조선동화선>이 출간되는 지점을 설화 장르가 인민들 사이에 보편화된 시기로 보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지나치게 작위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구비 전승되는 텍스트의 실체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은 문헌 정착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수긍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설화양식으로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출판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영역이 사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사화에 대한 인식은 시대를 거치면서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고정옥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역사 기록 속에 담긴 예술적 허구화를 들어서 구전설화의 영역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인다.

사화는 역사적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으로서만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사화의 창조자들은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구성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며 그 뿐만 아니라 일정하게 예술적 허구를 역사적 사실 속에 고착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화는 역시 설화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야 하며 그것은 야담적 장르 속에 포괄되어야 한다.²⁴⁾

23) 전설은 가장 향토적인 이야기인 바 그것은 향토사적 사실로서 그 향토사람들에게 전승되어 온 구전문학 장르이다. 인민들의 자기 향토에 대한 지극한 사랑, 향토의 역사와 향토가 낳은 민족적 영웅들과 걸출한 인물들, 그리고 아름다운 인민적 품성의 모범으로 되는 성실한 사람들에 대한 긍지와 존경과 친애감은 전설을 통하여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되었다. 오늘 근로 대중의 과거의 구전 문학 유산에 대한 흥미와 관심의 초점이 전설로 향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고정옥, 『조선구전문학연구』, 과학원출판사, 1962.)

24) 고정옥, 『조선구전문학연구』, 과학원출판사, 1962, 107-108면.

이에 비해 1993년에 오희복이 발표한 논문에서는 사회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등의 물음에 대하여 정확한 과학적인 해답을 주는 형식으로 작성되어 역사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이에 비해 전설은 아무리 역사적인 진실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민들에 의해 비현실적인 허구 환상과 가정이 들어가게 되므로 둘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과학적 방법론은 내세운 지나친 이분법적 논리로 비취진다. 정사(正史)로 규정된 『삼국사기』의 본기나 열전에서도 문학적 형상화는 손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적어도 사회에 대한 논의는 전시대에서 후퇴한 측면을 보인다.

3.2. 인민창작을 통한 현대 구전설화의 형성

북한에서 구전문학의 또다른 명칭으로 ‘인민창작’을 사용한 의식의 저변에는 인민이 존재하는 한 구두성(구술성)을 가진 이야기나 노래 등은 지속적으로 창작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다. 이는 인민들이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나 정한을 문예적으로 형상화하고 이를 집체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창의적인 존재라는 시각이기도 하다. 곧 인민성과 구술성의 결합으로 구전문학의 실체를 인정하는 입장으로, 학문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 듯하다.

고정옥 주도로 이루어진 현지조사 자료집인 『인민창작 1』(과학원출판사, 1961)을 보면 그 처음 항목이 ‘해방 후 군중가요’, ‘해방 전 인민가요’, ‘해방 전 이야기들’이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전설, 야담, 민담, 동화 등을 수록하고 있다. 구전문학이 고전문학의 한 범주가 아니라 옛날로부터 당대에까지 인민들이 구술을 통해 창조한 문학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에 충실한 편제로 보인다.

여기서 고정옥은 인민창작과 문학과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문학예술과의 관계에 있어 다만 그의 감상자로만 남아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의 적극적인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 오늘 근로자들은 구전적 형식에만 의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사 형식으로 그 수단을 확장하고 있으며, 생활의 선택과 평가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일반화의 원칙에서도 현저히 문학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문학과 인민 창작의 합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인민 창작은 문학의 보다 풍요한 모양으로 되면서 자기의 독자적인 영역을 보유하고 있다. 문학예술 씨클들은 생활에서의 새로운 싹들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그에 상응한 새로운 형식들을 생활 속에서 모색 탐구해 내고 있다. 이것은 그 창조자들이 무엇보다도 생활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그들의 창조 사업이 바로 생활 속에서 꽃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²⁵⁾

인민창작과 문학의 관계에서, 형태적으로는 인민들이 구전 형식으로 만든 이야기들이 기록이라는 서사(書寫)의 행위를 거치면 문학작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일상의 생활들을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문학에 접근하게 된다는 견해이다. 아울러 인민창작이 인민들의 실생활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완성된 문학은 보다 풍요로울 수 있으며, 인민창작이 문학보다 더 포괄적인 문예 개념임을 말하고 있다. 결국 인민들의 구술행위가 현대문학의 소재가 되면서 또한 독자적인 현대 구전문학의 범주를 형성한다는 견해로 보인다.

이러한 견해를 이어 리동원은 현대 구전설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설화인 경우 실지 있는 사실이거나 있을 수 있는 사실에 대한 허구적 반영과 전형화 과정에 창조되었다. 즉 많은 경우에 실화를 바탕으로 하여 설화가 형성되었으며 설화는 실화를 전형화하는 과정에 완성되었다. 때문에 선행시기 전통적 구전문학에서는 가상과 환상 등 조건적인 묘사가 형상 수법에서 강한 작용력을 높였다면 근대 이후에 들어올수록 현실반영의 사실주의적 전형화가 기본으로 되었다.²⁶⁾

25) 고정옥, 「수상 동지의 11월 27일 교시를 받들고」, 『인민창작 1』, 과학원출판사, 1961, 7면.

26) 리동원, 『조선구전문학연구2』, 문학예술출판사, 2005, 9면.

설화는 사실에서 연원하는데 이를 인민들이 허구화하고 전형화하는 가운데 완성되는 실체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 허구화와 전형화의 방법이 전통적인 설화에서는 가상과 환상 등의 기재로 형상화되었다면 근대 이후에는 현실을 반영한 사실주의적 기법이 사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사실담과 허구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풀어줄 열쇠로 판단되며 현대 사회의 구비설화를 논의하는데 시사점이 크다고 여겨진다.

북한은 여전히 구전문학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록 출판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서도 구전문학을 인정하면서 그 창작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취한다는 부분이 그러하다. 이점은 우리 남한과는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현대를 구비문학의 시대로 보지 않는다. 한동안 현대 구비문학의 실체를 찾고자하는 논의들이 있었지만 학계의 중론(衆論)을 마련하지 못하고 사그라지는 형국이다. 인민창작의 관점에서 현대의 경험담이나 일화들을 문학에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도 북한 주민 못지않게 일상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남에게 전해들은 풍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본 기사 중 흥미로운 사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이들이 사실에 근거하여 발단되지만 경험의 경우 여러 차례 반복하는 과정에서 허구가 가미되기도 하고, 남에게 전해들은 풍문의 경우에는 그러한 허구화가 더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남을 비난하거나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닌 한 이러한 이야기들이 파급된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경험담이나 주변 일화에 대해 구비문학의 범주에서 논의하는 것을 꺼려하는 입장이다. 생애담이나 체험담은 인류학이나 역사학, 사회학 영역에서 다룰 소재로 보고 여전히 고담을 찾아서 현지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그렇게 많지 않으며, 그나마도 독서를 통해 습득한 자료들을 풀어놓을 뿐이다. 물론 이러한 자료들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입장과 같이 새로운 장르로서 체험담이나 생애담을 현대의 구비설화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 볼 일이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의 특이한 생애와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²⁷⁾ 발표자는 이를 근세담 또는 근세일화라는 용어로 사용한 적이 있다. 아울러 현지 조사 과정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가 6.25체험담이거나 여성들의 시집살이 생애담이다. 이들 이야기들은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만 입담 좋은 화자들은 허구화 장치를 사용하고 이야기를 풍부하게 하고 있으며, 일부 이야기들은 전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이야기들이 일군을 이루면서 향유된다면 우리도 이를 현대의 구비설화로 규정하고 연구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북한에서 구전설화는 계급적 성격으로 볼 때에는 인민대중의 창조물이며 존재방식으로 보면 구비전승물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인민들의 생활문화를 반영한 실제 이야기에서 기인한 것이고, 인민의 염원이 투영되는 가운데 허구화가 이루어지고 설화화한다는 견해이다. 개념의 차원에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구술성을 전제하는 우리와 달리 인민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은 많은 차이점을 도출하고 있다.

먼저 구전설화의 창조자이면서 향유자인 인민들을 위해 구전문학 관련 개론서와 연구 논문을 교양서 수준으로 집필하고, 설화양식의 발생과 분화에 대해 과학적인 논증을 제시하고 있다. 학문의 범위로 구전문학 연구가 진행된다기보다는 인민 교양 차원에서 설화의 양식을 설명하고 이에 맞춰 작품을 해석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인민창작이 현재도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므로 현대의 구전문학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구전문학사를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주의적 원칙으로 구전문학을 정리하는 데서 기인하였지만 우리에게 비해

27) 필자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도심공원 이야기문화 조사연구'에서 전국 주요 도심공원의 이야기를 현지조사하는 과정에서 화자가 거주하는 인근의 근대시기 입지전적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다수 채록되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명망을 얻은 정치인도 있지만 시장의 지계꾼이나 일본에 징용간 인물들의 출세담이 오히려 대세를 이루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근세담, 혹은 근세일화 등으로 명명하였다.

구전문학의 영역을 더욱 확대할 수 있고, 새로운 자료를 풍부하게 확보하는 장점을 가진다. 이점은 구비문학을 고전문학의 범주로 다루는 남한 학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북한은 우리에게 비해 구비문학의 풍토가 살아있다고 판단된다. 집단노동 현장에서 노동력 증대를 위한 기동예술선동대 활동 중 인민가요가 창작되기도 하고, 지배층 우상화의 방편으로 악용되지만 새로운 전설들이 속속 만들어지기도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구비문학 자료들이 출판을 통해 널리 향유되는 풍토는 1960-70년대 우리의 면모와 흡사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현상이 이미 사라져 버린 남한의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분단이 고착화된 현실에서 남북 간의 체제 통합 형식의 통일이 요원하다고 하더라도 학문적 교류는 시류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남북한의 연구 성과의 비교를 통해 소통지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정옥 저, 신동흔 해제, 『조선구전문학연구』, 민속원, 2009.
- 고정옥, 『인민창작 1』, 과학원출판사, 1961.
- 고정옥, 『조선구전문학연구』, 과학원출판사, 1962.
- 김대행, 「북한의 문학사 연구-문학의 역사를 보는 시각」, 『시와 문학의 탐구』, 역락, 1999.
- 김문태, 「북한의 구비문학 장르 인식과 관점 연구」, 『어문연구』 33권 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 김문태, 「북한의 설화 연구-북한설화집을 중심으로」, 『누리와 말씀』 6호, 인천가톨릭대학교, 1999.
- 김영희, 「북한에서의 구전설화 전승과 연구」, 『한국문화연구』 5집,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2.
- 김의식, 「북한 설화에 나타난 주제론 연구-조총련계 학생용 교재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3권,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2001.
- 김종균, 「남북문학사의 고소설 형성론에 대한 비교」,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편, 『분단극복을 위한 인문학적 성찰』, 선인, 2009.
- 김종균, 「북한의 고전문학 자료 현황과 연구동향」, 『온지논총』 25집, 온지학회, 2010.
- 김준기, 「북한의 신화 연구에 관한 고찰」, 『한국문화연구』 5집,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2.
- 김화경, 「북한 설화의 변개 실태에 관한 연구」, 『인문연구』 17권 2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6.
- 김화경, 「북한의 설화 연구 실태에 관한 고찰」, 『민족문화논총』 16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 김화경, 『한국의 설화』, 지식산업사, 2002.
- 리동원, 「설화양식의 분화발전에 대한 고찰」,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2008년 1호.
- 리동원, 『조선구전문학개요(항일혁명편)』, 사회과학출판사, 1994.
- 리동원, 『조선구전문학연구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 리동원, 『조선구전문학연구2』, 문학예술출판사, 2005.
- 민족문학사연구소,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 창작과 비평사, 1991.
- 설성경·유영대, 『북한의 고전문학』, 고려원, 1990.

- 설성경, 「남북한 문학사의 비교」, 김열규 외, 『한국문학사의 현실과 이상』, 새문사, 1996.
- 설성경·김영민, 「통일문학사 서술을 위한 단계적인 방안 연구」, 『통일연구』 제2권 제1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8.
- 신동훈, 「남북 고전문학사의 만남을 위하여」,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편, 『분단 극복을 위한 인문학적 성찰』, 선인, 2009.
- 오희복, 「구전설화 작품들의 형태적 특성에 대한 간단한 고찰」, 『조선고전문학연구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 이복규, 「북한 설화에 대하여-관련자료집의 현황과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4집,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1.
- 이복규, 「북한의 문학사 서술양식」, 『국제어문』 9 · 10합집, 국제어문학연구회, 1989.
- 장권표, 『조선구전문학개요(고대중세편)』, 사회과학출판사, 1990.
- 조규익, 「통일시대 한국고전문학사 서술의 전망」, 『온지논총』 11집, 온지학회, 2004.
- 지덕봉, 「현 시기 구전 문학에 대한 연구와 대중화 사업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 가지 문제」, 『문학연구』, 1962년 4호.
- 최옥희, 『고전문예작품사화집』, 예술교육출판사, 1991.
- 한정미, 「북한의 문예정책과 구비문학의 활용 양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04.
- 한정미, 「북한의 설화인식과 전설의 도구화」, 『민속학연구』 15호, 국립민속박물관, 2004.
- 황패강, 「남북문학사의 과제」, 『한국 고전문학의 이론과 실제』, 단국대 출판부, 1997.

The study on the North Korean Folktale

Kim, Jong-Kun

The folktale in North Korea is a creature of people in terms of class, and oral traditions in terms of its existence. And the meaning is from real story which people's life culture was reflected, people's desire was inspired into the fiction, which was formulated. In aspect of concept, there's lots of difference between north and south because we're focusing on verbal and north is on people.

First of all, text books regarding oral literature and paper written as cultural level for the people who create and enjoy tale, and present scientific logic for the creature and classification of tale pattern. The pattern of tale is being explained by not a category of academy, but a cultural level.

On this basis, people's creativity can be possible even currently, therefore modern oral literature is set up and the oral literature history is being described.

This phenomenon was from the pattern that oral literature is arranged in the principal of history, but they have a merit which can secure a plenty of new materials and expand oral literature, it's far better than we do. This can show us big issue because south treats oral literature as classic literature.

Tale pattern was appeared in terms of the text in discussion of north. There are classified as myth, legend, people story, fairy tale, fable and gag.

The culture of oral literature seems to be survived in North Korea. People's song has been created during mass labor scene for the increase of productivity. This seems to be similar to our 1960's through 70's, it's necessary for us to have interest in this old custom.

There should be literal commun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even unification seems hard near future. Communication for the comparison of each study is being eagerly expected.

Key words : North Korea(north), Folktale, Tale pattern, Oral literature, People's creature, People, Humanities for Unification, orality, Communication

접수일자: 2010. 8. 30
심사기간: 2010. 8. 30~2010. 11. 20
게재결정: 2010. 11. 20